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일제히 규탄

"절대 있어선 안 될 일"

민주 이재명 대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윤 대통령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폭력 행위 용납 안될 것"

이낙연 전 총리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 절대 용납 못해"

민주, 피습 소식에 당혹… 비명계도 "있어선 안 될 일"

최형재 전주을 예비후보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

국내 정치권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한 것에 대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피습 소식에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폭력 행위 용납 안 될 것"이라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사회에서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무사, 무탈과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수사기관은 이번 일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부디 이 대표님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이 대표께서 어서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폭력이 다시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 테러"라며 "일국의 유력한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의 당수를 향한 공격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테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정치가 무릇 경쟁을 동반하는 일이라지만 그 또한 민주주의적 질서 위에서 있어야만 한다. 상대에 대한 증오가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낸 공지에서 "의원님들께서는 동요하지 말라"며 "대표님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송갑석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큰 부상이 아니길 빌며 함께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좌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결사체인 '원칙과상식'도 이 대표 쾌유를 기원하는 입장문을 즉각 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붙잡힌 용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이와 같은 폭력행위가 다시는 우리 정치와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올라왔다. 이동주 의원은 "경악스럽다"며 "새해 초부터 제1야당 대표가 왜 피습을 당했는지 빠른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이송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도내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한목소리를 냈다.

최형재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후진적 정치 테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위장한 계획범죄로 추정되는 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혐오가 우리사회에 보내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에 피습을 당했다.

신원 미상의 남성은 이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접근해 사인을 요청한 뒤 기습적으로 이 대표 목 부위를 흉기로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의식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3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보고 받고 향후 당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 새만금, 2차전지 신흥 메카로 도약"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일 시무식에서 2024년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기반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영일 의장은 "2024년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이미 지난 7월에 발표한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7대 후속대책과 전북도의 전략에 발맞춰 세부적인 밑그림을 구상하는데 의정운영의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단 배후도시로서의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한 긴박한 상황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때임을 역설하며 △새만금 이차전지 협약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인력양성 해소방안 및 지원제도 △이차전지 폐수 및 대기 환경문제 해결방안 및 대안책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및 전·후방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폐배터리 분석 센터)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센터 △배터리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 △이차전지 시험 인정센터 △이차전지 소프트웨어(BMS) 센터 조성 등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야말로 군산의 도시 및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이므로, 배후도시로서의 태세 확보에 뒤처지면 안된다"며 "군산시의 지·산·학·연을 총결집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전후방 산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및 TF팀을 구성하여 이차전지 산업에 수반되는 폐수처리 등 예측되는 환경문제에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동반체제 구축에도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2일 오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다가오는 22대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며 임실호국원에서 참배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참배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치도 성공·총선 승리 결의

민주 도당, 새해 호국원 참배… "대광법 · 의전원법 등 통과 총력"

선거구 획정과 관련 "당에서 전북 10곳 유지 원칙, 지도부와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다가오는 22대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며 호국원을 참배했다.

2일 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과 지방의원 및 핵심당원 100여명이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임실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한 위원장은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게 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호국 영령에 대한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식을 거행하게 됐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 전북도민의 안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최선의 노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위원장(익산을)과 김윤덕 의원(전주갑) 등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의전원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해 법사위 설득 등에 총력"을 약속하고 "도민의 마음을 얻는 데 더 노력하는 도당, 원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도당이 되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병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해 복잡한 상황이지만 당에서는 전북 10곳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지도부와 논의했다"라며 "여야 합의를 거치면 10석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정동영 전 장관 "尹정권 합법적으로 종식시키자"

〈통일부〉

민주당 소속 전주병 재도전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5선 도전에 나섰다.

정 전 장관은 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전북과 전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윤 정권의 백색독재, 연성독재와 맞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정동영이 앞장서서 윤 정권의 백색독재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데 중심이 되겠다"고 했다.

특히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한 것은 비극적인 역사의 후퇴"라고 안타까워하며 "이를 바로잡을 세력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에 가 북한의 핵 포기 결정과 개성공단, 베이징 6자 공동 성명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거꾸로 간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정동영이 다시 앞장서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주병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또 "얼마 전 이재명 대표에게 제발 대통령이 돼 달라. 대통령이 돼서 내 원을 풀어주고 나를 한반도 평화 체제 특사로 임명해 달라. 내가 미국 중국 북한을 뛰어다니며 추락한 한반도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제발 그러셔야지요'라고 응답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정 전 장관은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전북 발전 팀장을 맡아 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 14개 시군 저출생 비상사태 선포 △전주-완주 상생사업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장관은 "정동영 정치의 뿌리는 전주, 전북이다. 전국 연속 최다득표 당선이라는 영광의 뿌리가 있었기에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 되고 통일부장관 겸 NSC위원장으로 개성공단을 만들고. 마침내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동영 전 장관은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천시와 지리를 얻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전주와 전북에 효도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안겨드린 데 대해 큰 산과 같은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마지막 봉사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주신 전주와 전북에 빚을 갚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고창군의회, 갑진년 시무식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새해 의정활동 시작에 앞서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고 갑진년 새해를 희망차게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은 임정호 의장, 군의원, 의회사무과 직원과 심덕섭 군수 및 집행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정호 의장의 신년사와 의원들의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2024년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정호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제9대 고창군의회는 출범 후 군민의 작은 목소리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새해를 맞아 고창군의회는 군민께서 허락하신 4년이란 시간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다시 되새기며 집행부와의 관계를 견제와 협력 속에 지혜롭게 설정하고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들이 군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군민의 행복과 고창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으며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더 힘차게 열심히 뛰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4일 제30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출판기념회, 6일 완주 문예회관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1월 6일 오후 2시 완주군 문예회관(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에서 열린다.

안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의 정치여정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을 함께하며 느껴온 소회와 포부를 담아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을 출간했다. 출판기념회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안 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은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어

가능했다"며 "완진무장 군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큰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